

- 해외지역정보 -

S&P,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

국별조사실

-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&P는 9월 7일 베트남의 장기 외화표시 채권과 장기 자국 통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을 각각 BB-에서 BB로, BB에서 BB+로 한 단계씩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함.
- 단기 외화 및 자국 통화표시 채권은 B로 제시하였고, 장기등급 전망은 안정적(stable)으로 평가함.

□ 높은 성장 잠재력과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이 상향요인

- S&P는 베트남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이 높아진 점을 등급 상향의 주된 요인으로 언급함.
- 또한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시장 참가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추후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.
- 한편 베트남 금융시장은 지난해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한다가 종전 30%에서 49%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규모가 1년 사이 5배나 증가하였으며, 지난 22일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주식 투자한도를 기존 10%에서 20%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,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추가적인 등급상향의 걸림돌

- 베트남은 높은 노동생산성과 저축률, 농촌의 풍부한 잉여 노동력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임.
- 그러나 정부 주도적인 투자로 인해 민간 투자가 위축(crowd out)되어 있고, 방만한 정부 기관의 운용으로 원만한 자원배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은 좀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요소들로 분석됨.
- S&P는 베트남이 재정적자 비율을 줄이고, 금융개혁을 강화해 은행권의 무수익여신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 따라 현 정부의 시장경제적인 경제개혁조치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
전문연구원 마현규 (☎3779-6653)
E-mail : mahkyu@koreaexim.go.kr